

한국주거의 재발견

호남지방의 전통주거 문화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어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결국 지역의 특수성, 차별성 등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자료발굴과 함께 객관성있는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간적 범위도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호남은 전남과 전북의 총칭이다. 고려 현종9년(1016)에 전주와 나주의 첫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명칭도 함께한다. 지리적으로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영남이 되고 금강 위쪽은 충청이 된다. 호남지방은 크게보면 북동부는 산악지대이고 서남부는 평야지대로서 옛부터 농경문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또한 서해안과 남해에는 호남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엿 볼 수 있는 수많은 도서가 있다.

호남지방의 전통주거는 과연 타 지방과 비교되어지는 어떠한 무엇이 있는 것일까? 또한 지리적으로 노령산맥에 의해 구분되는 전북과 전남은 과연 호남이란 명칭을 공유할 만한 공통의 주거문화는 있는 것일까?



▲ [사진 1] 전형적인 호남민가의 구성 (안채와 행랑채의 'ㄱ'자형 배치)

2 과거 일반 백성이 살던 집은 신분과 경제력으로 인해 작고 실구성도 단순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평면구성과 쓰임새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

호남 민가의 실 구성은 본체의 경우 보통 집은 3~4실, 다소 규모가 큰 집은 5~6실 정도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一'자형 '홀집'계열로 평면구성은 3칸인 경우 정지·안방·옷방(광) 순으로, 4칸인 경우는 안방과 옷방(광)사이에 마루방이 더 추가되는 형식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전북의 경우는 3칸인 경우 방 두 개가 나란히 드러지는 반면에 전남에서는 특히 도서와 연안지역에서는 옷방이 마래(광)로 바뀐다.

이상과 같은 '一'자형에서 한쪽 측면에 정지와 작은방이 위·아래로 배치되면서 'ㄱ'자형을 연상케하는 유형도 호남지방 민가의 색다른 모습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외양간을 안채에 두는 가옥도 있다.

호남지방에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안채에 일종의 곡간인 '마래'라는 독립된 실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 실은 쓰임새 뿐만 아니라 이 실로 인해 전체 평면구성에도 영향을 주는 지역도 있다. 예로 전남 도서와 그 연안지역에서는 '마래'공간을 매우 신성시 하여 그 위쪽으로는 절대로 작은방을 배치하지 않았다. 즉, 건축적으로 공간의 위계성을 잘 지킨 것이다. 이

한국주거의 재발견

외에 안방 다음의 두번째 방인 작은방도 그 위치가 지역에 따라 변하는 호남지방 민가 구성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 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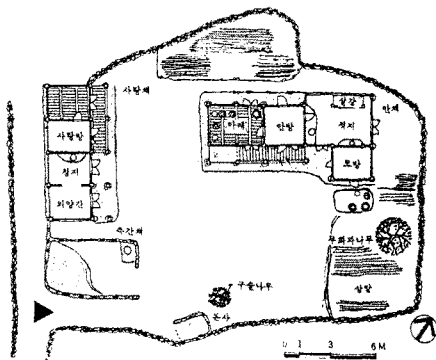
호남지방 민가에 있어 ‘마래’는 안채 내부에 설치되는 매우 중요한 실이다. 행랑채 등의 부속채에는 헛간 등만이 있을 뿐 곡식 등 주요 물품보관 장소인 마래는 반드시 안채에 설치된다. 바닥구조는 대부분 마루를 깔았으나 규모가 작은 가옥에서는 흙바닥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 실의 용도는 외형적으로 곡간의 기능을 갖는다. 수장 형태는 경작된 1년 알곡식이 크고 작은 독에 담겨져 큰 독은 아래로, 작은 독은 그 위로하여 벽선에 따라 나란히 놓여진다. 이외 각종 집안 살림도구(바구니, 상, 돛자리, 그릇 등)도 보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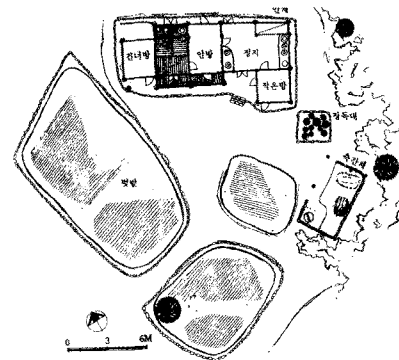


▲ [사진 2] 안채의 곡간 ‘마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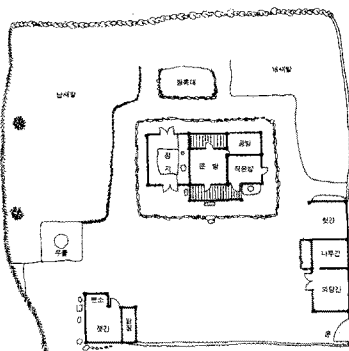
마래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마루방’, ‘대청’, ‘마리’, ‘광방’ 등으로도 불리고 기능도 약간 달리한다. 한편 전남 구례와 장흥 등 비교적 산간지역과 전북의 김제, 정읍, 순창 등에서는 ‘도장방’이라고 한다. 벼 도(稻)에서 나온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의 충칭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곡식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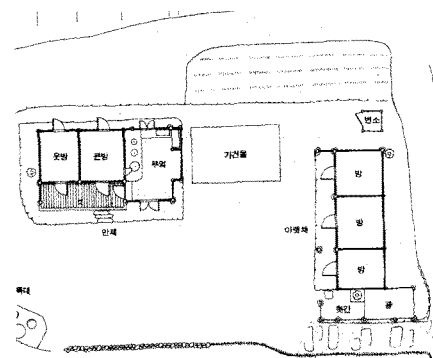
▲ [그림 1] 전남 신안군 제갈씨 가옥(1823년), 전남 도서와 그 연안지역에서는 두 번째 방은 반드시 정지 앞쪽에 설치되었다.



▲ [그림 2] 전남 나주시 이씨 가옥(19세기 중, 내륙에서는 마래(곡간)위로 건너방이 들어섰고 규모가 다소 큰 민가에서는 정지 앞쪽에 세 번째 방도 드렸다.



▲ [그림 3] 전북 정읍 송씨가옥, 주로 산간지역에서 나타나는 반겹집화 경향의 민가이다. 3칸집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도장방’, ‘작은 툃마루’ 등을 두었다.



▲ [그림 4] 전북 무주 최씨 가옥, 주로 전북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에서 보이는 부엌 하나, 방 두개의 3칸 민가이다.



한국주거의 재발견

란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이 명칭은 강원도 삼척 등 태백산맥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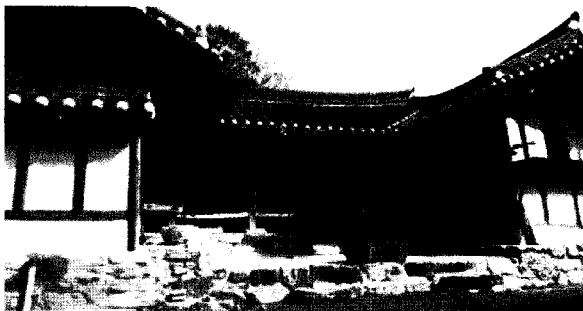
서남해 도서지역과 인근 연안 내륙 등 주로 전남지역에서는 이곳이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보통 3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셔두고 제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신위는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 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당을 별도로 건립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형편에서 마래방을 제사공간으로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한편, 마래 상부의 도리 위에는 집의 수호신인 성주가 모셔져 있다. 새로 집을 지었거나 또는 새로 이사했을 때 이 성주신을 모셔야만이 집안이 순탄하고 풍요로워진다고 한다. 이런 의례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세계관이 얽힌 문화공간임을 보여준다.

이 실에는 ‘수장+제례문화’ 기능에 부합되는 폐쇄적인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 정지방

이 방은 큰방과 대비되는 일종의 작은방으로 보통 정지 앞쪽에 있다. 식구가 많거나 또는 아들이 결혼하여 살림을 따로 내지 못할 때 이 방을 쓰게한다. 크기가 매우 작고 간편하게 드린 방이다. 이 방은 전남에서도 영산강유역의 평야지대 민가와 서해 도서(특히 신안, 진도군 등) 및 그 연안지역(영광, 함평, 강진, 해남 등)에서 많이 보이고 전북지방에서도 더러 보인다. 전남의 북부와 동부(순천, 여수 등)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사진 3] 남원 몽심재 안채

나주와 무안 등 특히 영산강유역의 중농가 가옥에는 방이 3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정지 앞쪽에 온다. 크기는 다른 방에 비해 작다. 한편 서해도서지역의 민가에서는 안방 다음의 2번째 방으로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자리한다. 아궁이 관리도 정지에서 안방과 함께 하는 이점이 있다. 특히 호칭도 집 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모방’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완도 등 남해도서에서 이 방이 정지 측면에 가도 모방이라고 한다. 모방이란 명칭은 서남해도서 민가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고유 명칭이다.

3 민가와 달리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외형적으로 우선 민가와 큰 차이가 보이고 건립과정도 유교적 사회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에는 주자가례가 모두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사를 중히 여기고 또한 종법(宗法)에 의한 종가(宗家)가 생겨나고 여기에서 분리되어 지손가 개념으로 분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가와 분가의 관계는 혈연적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주로 역시 유사한 형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관습으로 한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고 문중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형성되게 되었다.

역사가 다소 오래된 마을에 가면 으레 큰 규모의 가옥이 종가집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 대개 종가집은 지형적으로 위풍당당하게 높은 곳에 위치하여 상징적으로 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옥은 규모도 크고 사용부제도 고급스러워 지금까지도 건축학적으로나 민속·역사학적으로 많은 이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 [사진 4] 구례 운조루 안채

한국주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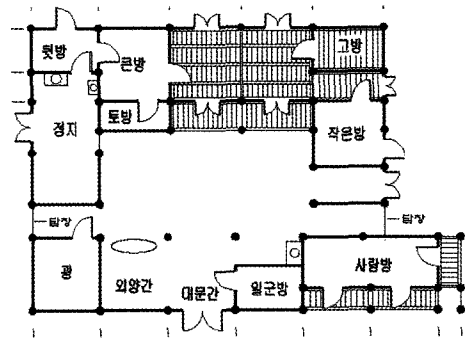
▲ [사진 5] 나주 흥기현 기옥 안채

호남지방도 조선 중·후기부터 특정 성씨들의 활약으로 번창한 동족마을이 형성되었고 그곳엔 어김없이 종가와 함께 여러 고급주택들이 들어섰다. 그중 역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돋보이는 곳을 보면 해남의 해남윤씨 가옥, 장흥 방촌의 장흥 위씨가옥, 나주 도래마을을 중심으로 한 풍산 흥씨가옥, 보성의 광주 이씨 가옥, 남원의 죽산 박씨가옥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상류주택도 많이 있으나 문중중심으로 발달한 가옥들은 나름대로의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지방의 중요한 민속자료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상류주택의 골격을 세울 때 우선시 되는 건물이다. 이는 조상숭배를 중시했던 사대부들이 제례공간으로 안채의 대청을 활용했고 또한 생활의 모(母)공간으로도 의미를 부여했다.

안채의 기본형태는 시기가 다소 빠를수록 'ㄱ'형의 외형을 갖추었다. 영남 북부지대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ㄱ'자형이나 중부지방의 'ㄱ'자형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ㄱ'형 앞에 부속채가 들어서 'ㄱ'자형을 유지하는 경우는 있다. 이러한 유형은 공통적으로 공간이 집약적이고 폐쇄적이다. 즉, 작고 아담한 중정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모아진다. 'ㄱ'형의 대표적 예로는 지금은 훼손되고 없어진 무안의 여산송씨 종가(17세기 초), 장흥 방촌마을의 종가(17세기 초), 담양 창평문화유씨 종가(17세기 중)와 함께 해남 녹우당(17세기), 구례 운조루(18세기 후), 정읍 김동수가옥(18세기 후), 남원 몽심재(19세기 초), 남원 죽산박씨 종가(19세기 초)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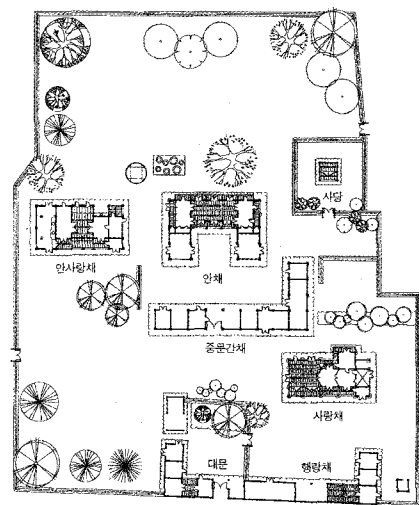
구한말 이후 근대화가 무르익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 [그림 5] 17세기 초에 지은 전남 장흥위씨 종가 평면도(추정), 'ㄱ'형 안채 바로 앞에 'ㄱ'자형 문간채가 자리하여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옥은 1945년에 헐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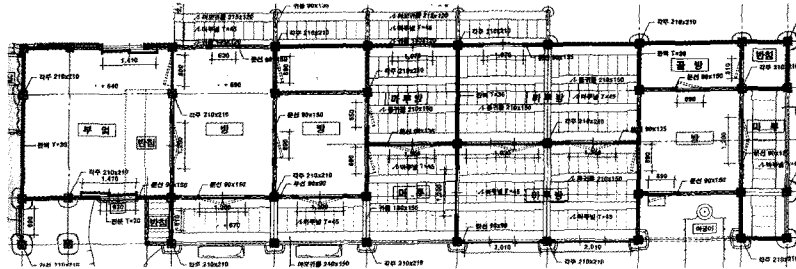
에 들어서는 'ㄱ'형보다 'ㄱ'자형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건립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대부분의 'ㄱ'자형 한옥이 바로 이 시기 즉, 50여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립됐다.

종가인 'ㄱ'형을 헐고 'ㄱ'자형(1945년)으로 새로 짓는 큰 변화도 일어났다(장흥 위성렬 가옥) 종가의 바른 법도라면 그대로 'ㄱ'형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ㄱ'자형으로 바뀌지는 까닭은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근대'라는 변화의 요구, 즉 개방과 편리성을 건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인근의 대다수 가옥들이 보기 좋고 위엄있는 'ㄱ'자형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ㄱ'형 한옥의 맥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 [그림 6] 김동수가옥 배치도(자료:한국의 건축문화재, 전북편)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7] 보성 이종선 가옥 평면도, 1908년에 지은 이 가옥은 대청보다는 마루방 (주로 수장기능) 중심으로 꾸민 근대기 부농층의 대표적 가옥이다.



▲ [사진 6] 보성 이종선가옥 정면

‘一’자형 가옥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평면구성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다. 평면은 정지(부엌)·안방·대청·건너방 순으로 크게 구획되어 있지만 내부는 겹집형식을 취하면서 매우 다양하게 실들이 분화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건축주가 근대화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신흥 부농층이기에 의례용인 넓은 대청보다는 곡간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들을 안채에 더 많이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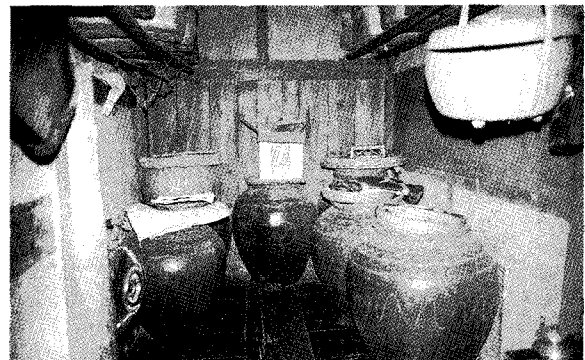
사랑채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완전히 안채와 분리되어 보통 대문간 가까이에서 건립되었고 그 이전에 지어진 경우는 안채와 가능한 가까이에, 또는 연결된 상태로 지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호남지방의 상류주택은 배치에 있어 타지방보다 분산적이다. 즉 채의 분화가 심하다. 안채에도 그에 딸린 안 사랑채가 있는가 하면 곡간채 등도 독립적으로 자리한다. 따라서 내·외부에 다양한 마당도 그에 걸맞게 형성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집이 개방적이다. 특히 조선 후기의 부농층가옥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읍 김동수 가옥 등)

4 부엌, 안방, 광(대청), 작은방 순으로 꾸며진 한국의 대표적 4칸 민가유형에서 왜 영남지방에서는 대청(전면 개방, 생활문화)이 되고 호남지방에서는 광(전면 판장문, 곡간문화)이 될까?

결론적으로 호남지방 가옥에서 타지방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안채의 ‘곡간문화’이다. 농업이 주였던 이 지방에서 곡식의 저장공간을 남다른 생명력있는 공간으로 여겨 집을 지을 때 통상 방(침실)을 드

리는 것처럼 곡간을 안채에 드린 것이다. 또한 조상의 위패, 성주신도 함께한 이 공간은 결국 ‘조상=곡식=생명’의 관계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곡간(광)의 설치는 호남지방에서도 서남해안 도서 및 그 연안지역이 더 적극적이고 차츰 위쪽(내륙)으로 갈수록 소극적이다. 가령 전남 신안 도서에서 3칸 집인 경우 거의 모두가 정지, 안방, 광(마래)순으로 꾸며지는 반면 김제, 완주, 무주 등 대부분 전북지역에서는 안방과 함께 나란히 방이 드러진다. 왜 호남 최대의 곡창지역인 나주, 김제 평야 등 내륙의 민가에서 더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이는 단순한 관습일지 모르나 그 내면에는 호남지방의 도서·해양문화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17,18세기 인근 내륙에서 이주해 온 ‘입도조(入島祖)’들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 도서문화는 도서가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과거 선조들의 경험 즉, 왜구침탈로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의 쓰라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곡간’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을지도 모른다.



▲ [사진 7] 장흥 위성탁기옥 안채 광